

---

#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교육 여부에 따른 문화적 역량 분석

## - S 대학교와 타 대학교 학생의 비교

### The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on The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 - A Comparison Between The Students of 'S' University and Other Universities

6조: 조은별, 김하경, 권소현, 문수경, 박재영, 박지연, 손지수, 신수빈, 임정현, 정인정, 주나영, 최시아

EunByeol Cho, Hakyoung Kim, Sohyun Gweon, Sugyeong Mun, Jayoung Park, Jiyeon Park, Jisu Son, Supin Shin, Junghyun Im, Injeong Jeong, Nayeong Ju, Siah Choi

---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on the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specifically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students of 'S' University and the students of other universiti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262 students comprised of freshmen and sophomores from five different universities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Data were then analyzed through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using the SPSS 23.0 program.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between the freshmen and sophomores of university 'S' ( $t=1.81, p>.05$ ), while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between the freshmen and sophomores of other universities ( $t=-5.26, p<.001$ ). In addition,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between the freshmen of university 'S' and other universities ( $t=-0.04, p>.05$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cultural competency between the sophomores of university 'S' and other universities ( $t=-6.06, p<.001$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first hypothesis in that students who received multicultural education ha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the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receive multicultural education, confirming the fact that there is a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in the nursing curriculum. Repeated tests on the effects and integration of these educational programs should also be necessary in the future.

**Keywords:**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cultural competency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주최 2018학년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우수상 수상 논문임.

# 서론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와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이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한국의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성향을 가진 환자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걸맞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환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관련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1].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을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 Lee[2]는 의료진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권위적인 태도 등 문화적 역량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으며[3], 국내 다른 직업군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4].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이 있다[5]. 다문화 간호교육(이하 다문화 교육)이 수강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사례도 있다. 미국 간호사협회는 1986년부터 간호 교과과정 속에 문화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방식을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간호대학 학사과정의 필수과정이다[6,7].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역량에 관한 교육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 기준 국내 150개 간호대학 중 28개 대학만이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전공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8]. 이에 비해 Lee[9]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의 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받은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비교하여 다문화교육 여부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정규 과정에 포함된 다문화 교육 수강 여부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S대학 1, 2학년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 관련 교육의 여부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수준의 향상도를 비교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의 실효성을 확인한다.

##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 1 가설,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 집단의 문화적 역량 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제 2 가설,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 집단의 문화적 역량 하위영역(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 문화적 만남)의 점수가 각각 더 높을 것이다.

## 4. 용어의 정의

### 1)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수용성, 문화적 민감성 등과 같은 용어와 혼용되어 온 복잡한 개념이며 개념이 다루는 영역의 범위 역시 모호하다. Cross 등[10]은 문화적 역량을 ‘집단 또는 개인이 다민족, 다언어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태도 및 정책’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을 대상자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ability), 개방성(openness), 유연성(flexibility)을 갖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개인의 과정으로 한정한다[2].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대학생인 것을 고려하여, 다문화 대상자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문화적 역량을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은 Han[11]이 간호대학생

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 중 Lee[5]가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이는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만남, 문화적 기술이라는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문화적 인식

문화적 인식이란, 대상자가 가진 문화의 가치·신념·생활양식을 지각하는 의도적이며 인지적인 과정이다[5].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을 파악하고 이것이 본인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 문화적 지식

문화적 지식은 다양한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교육적인 기반을 의미하며[12], Choi[13]는 문화적 지식을 타문화 세계관에 대한 이해, 타국가의 역사, 정치, 경제적 요인 등과 같은 다른 문화권의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좁혀, ‘다른 민족과의 건강관련 신념(health-related beliefs), 질병 발생과 유병(Disease incidence and prevalence), 치료의 효율성(treatment efficacy) 등에 대한 차이점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4].

#### •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민감성은 집단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하며[15]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개념을 의미한다[16]. Tucker 등[17]은 타문화 가진 대상자들과 의료인 사이에서의 문화적 민감성의 주요 속성에 경청과 질문, 관심의 표현 등과 같은 공감의 요인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민감성의 정의를 대상자에 맞게 변형하여 ‘타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인정하며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간호의 정서적 측면’이라고 정의한다.

#### • 문화적 기술

문화적 기술은 직, 간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에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의미한다. 다양한 대상자의 문화에 대해서 사정할 수 있는 능력, 대상자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대상자의 신념·가치에 맞게 신체 사정 및 간호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포함한다.

#### • 문화적 만남

문화적 만남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5]. 문화적 만남과 같은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관계가 문화적으로 역량 있게 되어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많은 연구가 동의하는 부분이다[15,18].

## 2) 다문화 교육

본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자·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문화적 인식 및 지식을 익혀 문화적 민감성을 함양하고 적절한 문화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선택적으로 다문화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한 문화적 만남 여부가 교육 커리큘럼 속에 포함될 수 있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 수강 여부가 간호학과 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을 수강한 학생과 수강하지 않은 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조사·비교하는 상관성 조사 연구이다.

대상 학교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학교와 실시하지 않은 S 대학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다.

## 2. 연구 대상

### 1) 대상자 선정

연구대상자는 1학년 교과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을 전공 필수로 지정한 전국 소재 4개의 대학교 간호학과 1,2학년 학생들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S대학 간호학과 1,2학년 학생들이다. Park 등[19]은, 대다수의 청소년이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나 다문화 활동 참여 경험이 전무한 채 입학하며, 대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접하거나 외국 문화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또한, Lee와 Park[20]에 의하면, 이와 같은 다문화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들의 경우 2,3,4학년 학생들에 비해 다문화 교육 이외에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 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이 각각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 다문화 교육을 받기 전 1학년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은 2학년 학생들과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저선이 된다.

본 연구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표출 조사를 시행하였다.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S대학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4개 학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 둘째, 다문화 관련 수업을 전공 필수로 시행하는 대학 셋째, 1학년 때 해당 수업을 시행하는 대학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선정된 4개 대학은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이다.

따라서, 4개 대학을 다문화 교육을 받은 '타대학'으로 통칭한다.

### 2) 대상자 동질성 검정

연구 목적에 따라 다문화 교육을 받은 A, B, C, D 대학들과 그렇지 않은 S대학 간 비교분석을 시행하기 전, 위와 같이 A, B, C, D 4개 학교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4개 학교 간 1학년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 및 문화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위해  $\chi^2$ -test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 친인척 유무, 외국 방문 경험, 외국인 접촉 빈도,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경험, 다문화 교육 필요성 인식을 제외한 항목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Appendix Table 1,2).

2학년 연구 대상자들 역시, 해외 방문 경험을 제외한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도구 개발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 1) 일반적 특성 및 문화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 관련 특성 도구는 Han[11]의 논문에 사용된 도구를 Jeon[21]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문화 관련 특성은 다문화 친인척·친구의 유무, 외국 방문 및 거주·다문화 교과과목 또는 관련 프로그램 경험 여부, 외국어 실력, 외국인 접촉 빈도, 다문화 교육 필요성 등을 묻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문화적 역량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Suh[12]의 문화 역량 모델을 기초로 Han[11]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Lee[5]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문화적 지식 9문항, 문화적 기술 6문항, 문화적 만남 4문항, 문화적 인식 4문항, 문화적 민감성 4문항의 총 27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1이며, 각 요인별로 .76~.91 분포를 보였다. 이미자의 연구에서는 전체항목에서 .917이었으며, 각 요인별로 .672~.890이었다.

##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는 2018년 3월 13일부터 2018년 3월 22일까지 수집하였다. 설문은 구글독스를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서 언급되었던 조건에 부합하는 각 대학교의 1,2학년 대표를 통해서 설문지 링크를 배부하였고,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특성 상 연구 참여자를 직접 만나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을 설명해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링크를 배부할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1학년 총 172명, 2학년 92명이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2명을 제외하여 1학년 총 172명, 2학년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표본 크기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G-power 3.1.9.3 analysis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15, 독립변인 5개로 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16명이었으므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종교, 외국방문경험, 외국어 실력, 외국인과의 교류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쉐페 검정(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5개 대학의 262명의 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는 S대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B대학 23.3%, D대학 18.3%, A대학 15.6%, C대학 14.5% 순이었다. 이들 중 1학년은 65.6%고 2학년은 34.4%였다.

#### 2)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파악한 결과, 대상자들 중 외국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75.2%, 1개월 이상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였으며 의사소통 가

능한 외국어가 있는 사람은 69.5%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외국어 실력이 유창하다고 답한 사람은 18.7%, 다문화 친구가 있는 학생은 31.3%에 불과했다. 대상자의 다문화 간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묻은 문항에서 22.5%의 학생들이 다문화 간호 교과과목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다문화 간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5명을 제외한 255명 98.1%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을 측정한 결과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점수는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별로 파악한 결과 평균 이하인 대학은 S대학(3.17점), D대학(3.32점)였으며 B대학(3.38점), A대학(3.36점), C대학(3.65점)은 평균 이상이였다. 특히 다문화 간호 교과과목이 없는 서울대는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받았다.

## 2. 문화적 역량 분석

### 1)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 (1) 다문화 교육 수강여부 비교

<Table 1> Whether or Not the Grade Levels of Each Statistical Group Received Multicultural Education

	S University	Others
2nd Year	No	Yes
1st Year	No	No

다문화 교육을 경험한 타대학 1학년과 2학년 간 문화적 역량을 비교하고,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S대학 1학년과 2학년 간 문화적 역량을 비교한다.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in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of 'S' University

Grade	N	Mean±SD	t	P	Scheffe
1	44	3.27±0.59	1.81	.074	-
2	30	3.05±0.48			

S대학 1학년의 문화적 역량 평균은 3.27, 2학년은 3.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81, p>.05$ ).

<Table 3> The Comparison of the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in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of Other Universities

Grade	N	Mean±SD	t	P	Scheffe
1	128	3.27±0.55	-5.26	<.001	-
2	60	3.72±0.52			

타대학 1학년의 문화적 역량 평균은 3.27, 2학년은 평균이 3.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t=-5.26, p<.001$ ).

## (2) S대학, 타대학 학년 별 문화적 역량

비교 S대학과 타대학의 1학년, S 대학과 타대학 2학년 간 문화적 역량을 비교해 보았다.

<Table 4> The Total Score of Cultural Competencies of First Year Students in Each Universities

	N	Mean±SD	t	P-value	Scheffe
S univ.	44	3.27±0.55	-0.04	.971	-
Others	128	3.27±0.59			

S대학 1학년과 타대학 1학년 문화적 역량 평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t=-0.04, p>.05$ ). 이는 5개 대학교 1학년들의 문화적 역량이 학교와 상관없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5> The Total Score of Cultural Competencies of Second Year Students in Each Universities

	N	Mean±SD	t	P	Scheffe
S univ.	30	3.03±0.52	6.06	<.001	-
Others	60	3.72±0.48			

S대학 2학년과 타대학 2학년 문화적 역량 평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6.06, p<.001$ ). 이는 다문화 교육을 받지 않은 S대학 2학년보다 다문화 교육을 받은 타대학 2학년의 문화적 역량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앞선 표 4,5의 결과를 참고했을 때, 다문화 교육을 받은 타대학 2학년 문화적 역량 평균점수는 다른 3개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다.

S대학과 타대학의 학년별 문화적 역량 점수를 영역 별로 하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적

만남’ 영역에서는 타대학 2학년이 모든 집단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문화적 기술’ 영역은 타대학 2학년이 타대학 1학년, S대학 2학년보다 점수가 높았다.

‘문화적 지식’ 영역은 타대학 2학년이 타대학 1학년, S대학 1,2학년보다 점수가 높았다. 반면,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인식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Appendix Table 4).

## 논의

다문화 교육을 받은 타대학과 그렇지 않은 S대학의 1,2학년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다문화 교육을 받지 않은 S대학의 1,2학년 문화적 역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타대학의 1,2학년 문화적 역량을 비교한 결과 각각 3.27점, 3.7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어 1학년 때 실시한 다문화 교육이 이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한 문화적 역량 측정 도구를 사용한 Lee[5]의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문화적 역량 점수가 0.78점 증가한 4.11점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S대학 1학년과 타대학 1학년의 문화적 역량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S 대학 1학년과 타대학 2학년의 비교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또한 다문화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켰다는 점을 시사하며 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문화적 역량 하위 영역별 비교를 통해서도 타대학 2학년의 문화적 만남, 기술, 지식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문화적 민감성과 인식 점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Lee[5]의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문화적 기술, 민감성, 지식, 인식점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문화적 만남 점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타대학 2학년의 문화적 인식과 민감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교육 시행 후 지식과 관련된 인지 영역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이후 기술과 관련된 실무영역, 태도나 가치 신념과 관련된 정서영역의 순서로 증가되었다는 선행논문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선행 연구는 봉사활동과 같이 문화적 만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만남 점수가 유

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만남 점수가 유의하게 나왔다. Lee[5]의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분명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해 향후 추가된 조사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D대학 1학년, 2학년 학생들 모두 각 학년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문화적 역량을 보였다. A,B,C대학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문화적 역량이 높은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커리큘럼 상 A,B,C대학과 다른 특이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D대학의 지리적 특성이다. D대학 간호학과 캠퍼스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다. 통계청 자료[22]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동두천시는 4.0%, 동두천시와 인접해 있는 포천시는 9.9%로, 경기도 전체 3.6%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학생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D대학 학생들은 외국인을 마주칠 가능성이 A,B,C대학에 비해서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대학의 종교적 환경이 있다. Yang 등[23]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D대학은 조사 대상 학교 중 유일하게 종교적 특색(기독교)을 지니고 있는 학교이다. D대학은 학교 미션의 가치를 표방하여 신입생들에게 ‘기독교의 이해’ 라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수업을 필수교양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D대학의 학교적 특색 또한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한 사전사후 조사 설계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실험설계 상의 문제로 인해 비교 집단 간의 일반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해 다문화 교육여부 외에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분석 결과 일반적, 문화적 특성 중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경험여부, 최근 1년간 다문화 대상자와의 접촉 빈도, 다문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또한 S대학과 타대학간의 일반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 유무, 외국어의 유창성과 다문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합해 보았을 때 다문화 교육 필요성 항목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

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각 대학별 다문화 교육 커리큘럼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이는 다문화 교육의 커리큘럼 상 차이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 수강여부에 따른 간호대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비교하여, 교육여부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시행되었다. 그 결과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한 학생 집단인 타대학 2학년의 문화적 역량 총 점수가 동일 대학의 다문화 관련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집단인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반면, 다문화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S대학 1학년과 2학년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 1가설이 지지되었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에서도 5개의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타대학 2학년이 가장 높아 제 2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파악하고 다문화 교육과의 상관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 세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문화 역량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인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시간적 부족으로 사전, 사후 실험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횡단적 비교로 인해 집단을 통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 외에 작용하는 외생변수 파악이 어려웠다. 또한 대학별 커리큘럼의 내용과 형식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과정 차이에 따른 문화적역량 증진의 정도 차이에 관한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여 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현재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커리큘럼의 구성과 역량 증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적역량 하위요소를 고려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인재 양성한다.

## 참고문헌

1. Kim DH, Kim SE. Cultural competence and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3;22(3):159-168.  
<https://doi.org/10.12934/jkpmhn.2013.22.3.1> 59
2. Lee BS, Oh IK, Lee EM. Foreign residents' experience of Korean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17(2):226-237. <https://doi.org/10.1111/jkana.2011.17.2.22> 6
3. Chae DH, Park YH, Kang KH, Lee TH.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2;18(1):76-86.  
<https://doi.org/10.1111/jkana.2012.18.1.76>
4. Choi SY. A study on the antecedent factors affecting helping professions' cultural competence- focusing on social workers, teachers, nurses, and social work civil servant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2;64(2):5-29.
5. Lee MJ. Development and effect on cultural compet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Chun Cheon: Kangwon University; 2016. p.1-140.
6. Oh WO.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1;17(4):222- 229.  
<http://dx.doi.org/10.4094/jkachn.2011.17.4.2> 22
7. Yoo IY, Lee JA. Cultural disposition and multicultural environmental sensi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014;21(6):925-931.  
<http://dx.doi.org/10.21086/ksles.2014.12.21.> 6.925
8. Hwang HY, Chyn YE, Hur J. Effect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subject on the empathy and multicultural attitud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 106-1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
9. Lee IS, Cho JY. A study on the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1): 283-290.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2> 83
10. Cross TL, Benjamin MP, Issacs MR. Towards a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 A monograph on effective services for minority children who are severely emotional disturbed. Washington, DC: CASSP Technical Assistance Center,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1989. p. 1-90.
11. Han SY.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dissertation].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4. p. 1-85.
12. Suh EE. The model of cultural competence through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004;15(2):93-102.  
<http://dx.doi.org/10.1177/104365960326248> 8
13. Choi HJ. Exploratory study on experience in multiculture and cultural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s in multicultural settings.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2011;37:405- 439.
14. Campinha-Bacote, J.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A model of car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002;13(3):181-184.  
<https://doi.org/10.1177/10459602013003003>
15. Majumdar B, Browne G, Roberts J, Carpio B. Effects of cultural sensitivity training on health care provider attitudes and patient outcom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04;36(2):161-166.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4.04029.x>
16. Hughes KH, Hood LJ. Teaching methods and an outcome tool for measuring cultural sensitiv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007;18(1):57-62.  
<https://doi.org/10.1177/1043659606294196>
17. Tucker CM, Herman KC, Pedersen TR, Higley B, Montrichard M, Ivery P. Cultural sensitivity in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s: perspectives of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of low-income primary care

- patients. *Med Care*. 2003;41(7):859-70.  
<https://doi.org/10.1097/01.MLR.0000068544.11426.4C>
18. Burchum JR. Cultural competence: An evolutionary perspective. *Nursing Forum*. 2002;37(4):5-15.  
<https://doi.org/10.1111/j.1744-6198.2002.tb01287.x>
  19. Park HJ, Seong JH, Son HR, Lee MY, Cho HM, Park SK.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Experience up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 Diaspora Studies*. 2015;7:92-117.
  20. Lee MS, Park YM. Cultural Competency by Multicultural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12):657-665.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657>.
  21. Jeon HK.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rans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for subject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 [master's thesis]. Incheon: Gachon University; 2015. p.1-59.
  22. The Status of Gyeonggi-do Population and Household [Internet]. Gwacheon: Gyeongin Regional Statistics Office; 2017 [cited 2018 May 14].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office/giro/rogi\\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06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9D%B8%EA%B5%AC](http://kostat.go.kr/office/giro/rogi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06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9D%B8%EA%B5%AC)
  23. Yang SY, Lim HN, Lee JH.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1):183-193.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 Appendix

<Table 1> The Assumption of Homogeneity of Variance on the Gener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mong Freshmen of Other Universities.

Category		A	B	C	D	$\chi^2$	P
		N(%)	N(%)	N(%)	N(%)		
sex	Male	6(15.0%)	5(11.1%)	1(3.8%)	4(23.5%)	3.94	.250
	Female	34(85.0%)	40(88.9%)	25(96.2%)	13(76.5%)		
age	Under 19	31(77.5%)	40(88.9%)	23(88.5%)	14(82.4%)	2.45	.476
	Above 20	9(22.5%)	5(11.1%)	3(11.5%)	3(17.6%)		
religion	Christian	13(32.5%)	18(40.0%)	8(30.8%)	6(35.3%)	4.11	.928
	Catholic	4(10.0%)	3(6.7%)	2(7.7%)	1(5.9%)		
	Buddhist	3(7.5%)	1(2.2%)	0(0.0%)	1(5.9%)		
	Atheist	20(50.0%)	23(51.1%)	16(61.5%)	9(52.9%)		
Foreign relative	Yes	4(10.0%)	2(4.4%)	3(11.5%)	6(35.3%)	9.40	.016
	No	36(90.0%)	43(95.6%)	23(88.5%)	11(64.7%)		
Foreign friend	Yes	11(27.5%)	17(37.8%)	11(42.3%)	5(29.4%)	1.98	.577
	No	29(72.5%)	28(62.2%)	15(57.7%)	12(70.6%)		
Experience	Same neighborhood, acquaintance	4(10.0%)	6(13.3%)	6(23.1%)	2(11.8%)	10.28	.814
	No neighborhood, acquaintance	6(15.0%)	12(26.7%)	6(23.1%)	2(11.8%)		
	Same neighborhood, no acquaintance	5(12.5%)	9(20.0%)	3(11.5%)	4(23.5%)		
	No acquaintance, interaction	8(20.0%)	4(8.9%)	3(11.5%)	2(11.8%)		
	No acquaintance, no interaction,	10(25.0%)	9(20.0%)	5(19.2%)	6(35.3%)		
	Only via media	7(17.5%)	5(11.1%)	3(11.5%)	1(5.9%)		
Visit Abroad	Yes	28(70.0%)	33(73.3%)	14(53.8%)	16(94.1%)	8.28	.041
	No	12(30.0%)	12(26.7%)	12(46.2%)	1(5.9%)		
Living Abroad (over 1 month)	Yes	6(15.0%)	11(24.4%)	3(11.5%)	6(35.3%)	4.77	.190
	No	34(85.0%)	34(75.6%)	23(88.5%)	11(64.7%)		
Foreign language	Yes	27(67.5%)	28(62.2%)	18(69.2%)	10(58.8%)	0.75	.862
	No	13(32.5%)	17(37.8%)	8(30.8%)	7(41.2%)		
Language fluency	Not at all	1(2.5%)	9(20.0%)	3(11.5%)	2(11.8%)	8.62	.176
	Not fluent	30(75.0%)	30(66.7%)	21(80.8%)	12(70.6%)		
	fluent	9(22.5%)	6(13.3%)	2(7.7%)	3(17.6%)		
Contact frequency	None	20(50.0%)	17(37.8%)	7(26.9%)	4(23.5%)	15.46	.013
	Sometimes	18(45.0%)	25(55.6%)	16(61.5%)	6(35.3%)		
	Frequently	2(5.0%)	3(6.7%)	3(11.5%)	7(41.2%)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	Yes	2(5.0%)	11(24.4%)	1(3.8%)	4(23.5%)	10.00	.013
	No	38(95.0%)	34(75.6%)	25(96.2%)	13(76.5%)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Great need	15(37.5%)	25(55.6%)	4(15.4%)	10(58.8%)	22.11	.006
	Need	21(52.5%)	20(44.4%)	17(65.4%)	6(35.3%)		
	Somewhat need	2(5.0%)	0(0.0%)	4(15.4%)	1(5.9%)		
	Not need	1(2.5%)	0(0.0%)	0(0.0%)	0(0.0%)		
	Don't know	1(2.5%)	0(0.0%)	1(3.8%)	0(0.0%)		

<Table 2> The Assumption of Homogeneity of Variance on the Gener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mong Sophomores of Other Universities

	Category	A	B	C	D	$\chi^2$	P
		N(%)	N(%)	N(%)	N(%)		
sex	Male	0(0.0%)	1(6.3%)	2(13.3%)	2(9.5%)	1.17	.857
	Female	8(100.0%)	15(93.8%)	13(86.7%)	19(90.5%)		
age	Under 19	6(75.0%)	8(50.0%)	10(66.7%)	6(28.6%)	7.35	.057
	Above 20	2(25.0%)	8(50.0%)	5(33.3%)	15(71.4%)		
religion	Christian	2(25.0%)	9(56.3%)	3(20.0%)	5(23.8%)	9.82	.253
	Catholic	1(12.5%)	1(6.3%)	1(6.7%)	1(4.8%)		
	Buddhist	1(12.5%)	0(0.0%)	0(0.0%)	1(4.8%)		
	Atheist	4(50.0%)	6(37.5%)	11(73.3%)	14(66.7%)		
Foreign relative	Yes	0(0.0%)	2(12.5%)	2(13.3%)	3(14.3%)	1.07	.849
	No	8(100.0%)	14(87.5%)	13(86.7%)	18(85.7%)		
Foreign friend	Yes	1(12.5%)	3(18.8%)	2(13.3%)	5(23.8%)	0.83	.936
	No	7(87.5%)	13(81.3%)	13(86.7%)	16(76.2%)		
Experience	Same neighborhood, acquaintance	0(0.0%)	2(12.5%)	3(20.0%)	2(9.5%)	19.45	.105
	No neighborhood, acquaintance	2(25.0%)	1(6.3%)	0(0.0%)	5(23.8%)		
	Same neighborhood, no acquaintance	1(12.5%)	1(6.3%)	3(20.0%)	2(9.5%)		
	No acquaintance, interaction	2(25.0%)	2(12.5%)	0(0.0%)	5(23.8%)		
	No acquaintance, no interaction,	2(25.0%)	6(37.5%)	9(60.0%)	6(28.6%)		
	Only via media	1(12.5%)	4(25.0%)	0(0.0%)	1(4.8%)		
visit abroad	Yes	7(87.5%)	16(100.0%)	12(80.0%)	12(57.1%)	10.26	.011
	No	1(12.5%)	0(0.0%)	3(20.0%)	9(42.9%)		
Living Abroad (over 1 month)	Yes	2(25.0%)	2(12.5%)	2(13.3%)	2(9.5%)	1.53	.683
	No	6(75.0%)	14(87.5%)	13(86.7%)	19(90.5%)		
Foreign language	Yes	7(87.5%)	10(62.5%)	9(60.0%)	12(57.1%)	2.44	.487
	No	1(12.5%)	6(37.5%)	6(40.0%)	9(42.9%)		
Language fluency	Not at all	0(0.0%)	5(31.3%)	2(13.3%)	4(19.0%)	6.95	.290
	Not fluent	5(62.5%)	10(62.5%)	12(80.0%)	15(71.4%)		
	fluent	3(37.5%)	1(6.3%)	1(6.7%)	2(9.5%)		
Contact frequency	None	2(25.0%)	4(25.0%)	3(20.0%)	5(23.8%)	2.85	.908
	Sometimes	6(75.0%)	10(62.5%)	12(80.0%)	15(71.4%)		
	Frequently	0(0.0%)	2(12.5%)	0(0.0%)	1(4.8%)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	Yes	7(87.5%)	10(62.5%)	8(53.3%)	16(76.2%)	3.56	.320
	No	1(12.5%)	6(37.5%)	7(46.7%)	5(23.8%)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Great need	5(62.5%)	9(56.3%)	7(46.7%)	9(42.9%)	3.05	.855
	Need	2(25.0%)	6(37.5%)	7(46.7%)	11(52.4%)		
	Somewhat need	1(12.5%)	1(6.3%)	1(6.7%)	1(4.8%)		
	Not need	0(0.0%)	0(0.0%)	0(0.0%)	0(0.0%)		
	Don't know	0(0.0%)	0(0.0%)	0(0.0%)	0(0.0%)		

<Table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y	N(%)
university	S National university	74(28.2%)
	A	48(18.3%)
	B	61(23.3%)
	C	41(15.6%)
	D	38(14.5%)
sex	Male	32(12.2%)
	Female	230(87.8%)
age	Under 19	189(72.1%)
	Above 20	73(27.9%)
	Mean±SD	19.15±1.49
religion	Christian	81(30.9%)
	Catholic	19(7.3%)
	Buddhist	9(3.4%)
	Atheist	153(58.4%)
grade	1	172(65.6%)
	2	90(34.4%)
Relative	Yes	32(12.2%)
	No	230(87.8%)
Friend	Yes	82(31.3%)
	No	180(68.7%)
Experience	Same neighborhood, acquaintance	34(13.0%)
	No neighborhood , acquaintance	52(19.8%)
	Same neighborhood, no acquaintance	37(14.1%)
	No acquaintance, interaction	37(14.1%)
	No acquaintance, no interaction, Only via media	70(26.7%) 32(12.2%)
visit abroad	Yes	197(75.2%)
	No	65(24.8%)
Living Abroad(over 1 month)	Yes	55(21.0%)
	No	207(79.0%)
Foreign language	Yes	182(69.5%)
	No	80(30.5%)
Fluency	Not at all	34(34.4%)
	Not fluent	179(68.3%)
	Fluent	49(18.7%)
Contact frequency	None	90(34.4%)
	Sometimes	149(56.9%)
	Frequently	23(8.8%)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	Yes	59(22.5%)
	No	203(77.5%)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Great need	104(39.7%)
	Need	129(49.2%)
	Somewhat need	24(9.2%)
	Not need	2(0.8%)
	Don't know	3(1.1%)

<Table 4> The Comparison of the Sub-Categories of the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between Freshmen and Sophomores of University 'S' and Other Universities.

Variables	Groups	N(%)	Mean±SD	t/F	P	Scheffe/Dunnett T3
Cultural encounter	S1	44(16.8%)	4.53±0.55	9.38	<.001	O2>O1>S2, O2>S1
	S2	30(11.5%)	4.43±0.54			
	O1	128(48.9%)	4.42±0.50			
	O2	60(22.9%)	4.58±0.47			
Cultural skill	S1	44(16.8%)	2.55±0.88	7.55	<.001	O2>O1,S2
	S2	30(11.5%)	2.35±0.73			
	O1	128(48.9%)	2.53±0.75			
	O2	60(22.9%)	3.33±0.78			
Cultural sensitivity	S1	44(16.8%)	4.33±0.59	0.98	.404	
	S2	30(11.5%)	4.09±0.75			
	O1	128(48.9%)	4.18±0.63			
	O2	60(22.9%)	4.22±0.59			
Cultural knowledge	S1	44(16.8%)	3.00±0.94	17.42	<.001	O2>S1, S2, O1
	S2	30(11.5%)	2.62±0.80			
	O1	128(48.9%)	3.04±0.84			
	O2	60(22.9%)	3.46±0.69			
Cultural awareness	S1	44(16.8%)	2.98±0.82	1.69	.169	
	S2	30(11.5%)	2.75±0.75			
	O1	128(48.9%)	3.25±0.91			
	O2	60(22.9%)	3.63±0.69			

S1= Freshmen of S National University, S2= Sophomores of S National University, O1= Freshmen of Other Universities, O2= Sophomores of Other Universities, SD=Standard Deviation

문화적 만남, 문화적 기술, 문화적 지식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The Results of the Assumption of Homogeneity of Variance on Each Categories of the Gener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 and Other Universities.

Variables	Groups	Others N(%)	S university N(%)	$\chi^2$	P
sex	Male	21(11.2%)	11(14.9%)	0.68	.411
	Female	167(88.8%)	63(85.1%)		
age	Under 19	138(73.4%)	51(68.9%)	0.53	.466
	Above 20	50(26.6%)	23(31.1%)		
religion	Christian	64(34.0%)	17(23.0%)	3.79	.286
	Catholic	14(7.6%)	5(6.8%)		
	Buddhist	7(3.7%)	2(2.7%)		
	Atheist	103(54.8%)	50(67.6%)		
Relative	Yes	22(11.7%)	10(13.5%)	0.16	.687
	No	166(88.3%)	64(86.5%)		
Friend	Yes	55(29.3%)	27(36.5%)	1.29	.256
	No	133(70.7%)	47(63.5%)		
Experience	Same neighborhood, acquaintance	25(13.3%)	9(12.2%)	2.10	.835
	No neighborhood, acquaintance	34(18.1%)	18(24.3%)		
	Same neighborhood, no acquaintance	28(14.9%)	9(12.2%)		
	No acquaintance, interaction	26(13.8%)	11(14.9%)		
	No acquaintance, no interaction,	53(28.2%)	17(23.0%)		
	Only via media	22(11.7%)	10(13.5%)		
visit abroad	Yes	138(73.4%)	59(79.7%)	1.14	.286
	No	50(26.6%)	15(20.3%)		
Living Abroad (over 1 month)	Yes	34(18.1%)	21(28.4%)	3.39	.066
	No	154(81.9%)	53(71.6%)		
Foreign language	Yes	121(64.4%)	61(82.4%)	8.18	.004
	No	67(35.6%)	13(17.6%)		
Fluency	Not at all	26(13.8%)	8(10.8%)	8.26	.016
	Not fluent	135(71.8%)	44(59.5%)		
	Fluent	27(14.4%)	22(29.7%)		
Contact frequency	None	62(33.0%)	28(37.8%)	0.88	.643
	Sometimes	108(57.5%)	41(55.4%)		
	Frequently	18(9.6%)	5(6.8%)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	Yes	59(31.4%)	0(0.0%)	29.97	<.001
	No	129(68.6%)	74(100.0%)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Great need	84(44.7%)	20(27.0%)	0.05	.012
	Need	90(47.9%)	39(52.7%)		
	Somewhat need	11(5.9%)	13(17.6%)		
	Not need	1(0.5%)	1(1.4%)		
	Don't know	2(1.1%)	1(1.4%)		

<Table 6> The Level of Cultural Competencie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Groups	N(%)	Mean	t/F	P	Scheffe/Dunnett T3
sex	Male	32(12.21%)	3.35	0.01	.991	-
	Female	230(87.79%)	3.35			
age	Under 19	189(72.14%)	3.33	-1.03	.304	-
	Above 20	73(27.86%)	3.41			
religion*	Christian	81(30.92%)	3.35	0.40	.757	-
	Catholic	19(7.25%)	3.30			
	Buddhist	9(3.44%)	3.54			
	Atheist	153(58.40%)	3.34			
grade	Freshmen	172(65.65%)	3.27	-2.92	.004	-
	Sophomore	90(34.35%)	3.49			
course	Yes	202(77.10%)	3.24	-5.99	<.001	-
	No	60(22.90%)	3.72			
university*	S National university	74(28.24%)	3.18	4.56	.001	D> S university
	A	48(18.32%)	3.32			
	B	61(23.28%)	3.38			
	C	41(15.65%)	3.36			
	D	38(14.50%)	3.65			
Foreign relative	Yes	32(12.21%)	3.31	0.40	.692	-
	No	230(87.79%)	3.35			
Foreign friend	Yes	82(31.30%)	3.33	0.28	.777	-
	No	180(68.70%)	3.36			
Experience*	Same neighborhood, acquaintance	34(12.98%)	3.59	2.30	.049	-
	No neighborhood, acquaintance	52(19.85%)	3.23			
	Same neighborhood, no acquaintance	37(14.12%)	3.39			
	No acquaintance, interaction	37(14.12%)	3.40			
	No acquaintance, no interaction	70(26.72%)	3.25			
	Only via media	32(12.21%)	3.41			
visit abroad	Yes	197(75.19%)	3.36	-0.39	.699	-
	No	65(24.81%)	3.32			
living abroad (over 1 month)	Yes	55(20.99%)	3.27	1.14	.257	-
	No	207(79.01%)	3.37			
Foreign language	Yes	182(69.47%)	3.38	-0.12	.220	-
	No	80(30.53%)	3.28			
Language fluency*	Not at all	34(12.98%)	3.34	1.94	.146	-
	Notfluent	179(68.32%)	3.31			
	fluent	49(18.70%)	3.49			
Contact frequency*	None	90(34.35%)	3.24	3.83	.023	Frequently> none, sometimes
	Sometimes	149(56.87%)	3.38			
	Frequently	23(8.78%)	3.58			
Multicultural educational program	Yes	203(77.48%)	3.23	-6.23	<.001	-
	No	59(22.52%)	3.77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Great need	104(39.69%)	3.61	17.55	<.001	Great need> need> somewhat need> not need
	Need	129(49.24%)	3.24			
	Somewhat Need	24(9.16%)	2.96			
	Not need	2(0.76%)	2.41			
	Don't know	3(1.15%)	2.79			

\*: ANOVA test

#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분석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 과정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본 설문지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분석”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작성 되었으며, 전국 소재 간호대학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귀하께서 작성할 설문 문항들의 작성 소요시간은 약 5분 정도이며, 솔직한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 본인은 어떤 위험이나 비용이 따르지 않음과 연구 참여 중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시는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집된 자료는 201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 후 즉시 폐기될 것 입니다.

연구 종료 후 전화번호를 기입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10분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에 문의가 있으실 경우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 드림  
대표자 조은별  
이메일 : anniebuel@gmail.com

## 동의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책임자나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작성날짜) 2018년 월 일
동의서 받은 사람	(성명)	(서명)	(작성날짜) 2018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작성날짜) 2018년 월 일



13. 최근 1년 다문화 대상자(외국인)와의 접촉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전혀 없다    가끔    자주

14. 대학에서 다문화 대상자(외국인) 간호에 대한 교과과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없다

15. 다문화 대상자(외국인) 간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15-1번 문항)    없다

15-1. 교육 프로그램을 접한 곳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십시오.

- 지역사회 (교회, 성당 등)  
 동아리 활동  
 학교, 비교과목 과정 (초청강연, 단기교육과정 등)  
 기타

16. 간호교육에서 다문화 대상자(외국인) 간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II. 다음은 문화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난에 √표 하십시오.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1	2	3	4	5
2. 나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로서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종과 문화와 관련된 편견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교육 또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인종들 간 문화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다문화 대상자의 문화를 이해할 때 그들의 연령, 성별, 경제상태와 같은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다른 문화권 대상자가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죽음과 관련한 다른 문화권의 신념과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문화권의 흔한 특정한 질병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문화권의 건강습관(건강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다른 문화권의 신념과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문화권의 건강신념에 대해 알고 있다. * 건강신념 : 건강행위(개인이 자기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가 일어나기 직전의 마음상태로서 동기 유발에 의해 높아질 수 있음	1	2	3	4	5
12. 나는 다른 문화권의 건강돌봄서비스(병원 또는 의료기관)를 찾는 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13. 나는 비자, 영주권, 귀화 등과 같이 다문화 대상자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있다.	1	2	3	4	5
14. 나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표현방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나는 종교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6. 나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데 관심이 있다.	1	2	3	4	5
17. 나는 여러 나라의 문화적 관습을 배우고 싶다.	1	2	3	4	5
18. 나는 다문화 대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정보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1	2	3	4	5
19. 나는 다문화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다문화 대상자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한 간호목표를 설정 할 수 있다.	1	2	3	4	5
21. 나는 다문화권 대상자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 진단 : 사정을 통해 확인된 간호 문제	1	2	3	4	5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나는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사정할 수 있다. * 사정 : 간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환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근거하여 간호력을 작성하는 것	1	2	3	4	5
23. 나는 다문화 대상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다.	1	2	3	4	5
24. 서로 다른 인종의 배경을 가진 소수집단 대상자들에 대한 나의 간호역량을 향상시킬 방법에 관하여 수업시간을 통해 배울 기회를 갖는다.	1	2	3	4	5
25. 나는 동료로부터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배울 기회를 갖는다.	1	2	3	4	5
26. 나는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다른 대상자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	1	2	3	4	5
27. 나의 학교는 다문화 이해하기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가 하도록 지원한다.	1	2	3	4	5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휴대폰 번호는 기프티콘을 보내는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예: 01012345678).